

지방사회의 동요와 호족의 등장

2017. 11. 30.

채 응 석 *

1. 재해와 수탈로 고통 받는 농민들
2. 지방 세력의 대두와 자치기구
3. 증대되는 지방사회의 문화적 역량
4. 향도의 조직과 활동

1. 재해와 수탈로 고통 받는 농민들

1) 자연재해와 기근의 연속

농업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농사는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쉬웠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구휼과 권농시스템을 잘 갖추어 농민을 보호한다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는 재해 상황이 특별히 심했으며,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였다.

『삼국사기』에서 홍수와 가뭄, 냉해 즉 때 아닌 눈·서리·우박의 피해, 누리 창궐 등의 재해 기록을 살펴보면, 모두 584회가 기록된 가운데 240회가 8~9세기에 집중되었다. 그렇게 재해가 자주 또 크게 발생하면서 장기간 기근이 들었다. 755년(경덕왕 14) 봄에 든 기근과 역질(전염병)의 경우, 그 참담한 실정이 효자 향덕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향덕은 웅천주 판적향(지금의 공주시 소학동)에 살았다. 굶주리고 어머니는 종기까지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모셨으나 봉양할 음식이 없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드시도록 하였고, 또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어 모두 무사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재해로 인한 피해는 점차 국가의 복구 능력을 넘어섰다. 재해가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귀족들이 분열하여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구휼과 권농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장기간의 기근은 영양 결핍과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여 역질이 유행하였다. 역신(疫神).

* 가톨릭대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한국중세사학회 회장 역임.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2000, 서울대 출판부);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왕조 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사시민강좌』40(2007); 『한국 고대 향도의 조직과 역할』 『한국고대사연구』81(2016)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제웅[처용]과 처용가처용무가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시기였다. 기근과 역질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제웅과 같은 주술적 액막이를 하거나, 불교에 의지하여 약사신앙이 유행하였다. 약사여래는 중생을 병고에서 구제해준다고 신앙되었는데, 방어산 약사마애삼존불상(801년), 경주 윤을곡 마애삼존불상(835년), 영양 연당동 약사불상(889년) 등 많은 약사불상들이 그 무렵에 조성되었다.

2) 흩어지고 ‘초적’이 된 농민들

재해나 기근이 들면 부세를 감면하고 농업 생산을 돕기 위한 대책들을 다각도로 잘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부세 납부만 독촉한다면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 신라 하대에 유망과 초적 등이 대거 발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9세기 초에 초적이 계속 발생하고 김헌창의 반란이라는 대규모 변란까지 일어났다. 9세기 중엽부터 재해와 기근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정부의 지방 통치력이 약화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국가 재정이 궁핍하여 부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농민의 유망과 항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라 하대에는 농지 소유도 매우 불균등하였다. 귀족들은 녹읍이나 식읍의 지배권을 국가로부터 받고, 또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여 전장(田莊)을 경영하였다. 그런 상황을 『신당서』에는 “신라 재상가에 녹이 끊이지 않고 노비가 3천 명이며 병사와 가축도 이와 비슷한 숫자였다. 섬에 목축을 하다가 먹고 싶으면 활을 쏘아 잡았다. 사람들에게 미곡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전장과 고리대가 발달함에 따라 생활이 불안정해진 데다가 재해가 겹치게 되면 농민들이 부세까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국가의 구휼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해와 수탈로 식량이 떨어지면 귀족의 예속민이 되거나 유망하거나 초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삼국유사』에는 조신(調信)이라는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 9세기 전반기 몰락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전한다. 조신의 가족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사방을 떠돌면서 십년 동안 비참하게 걸식하다가 마침내는 가족마저 굶어죽거나 흩어지고 말았다. 몰락한 농민들은 살 길을 찾다가 초적으로도 변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초적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9세기 후반이 되면 제법 큰 무리를 이룬 경우도 생겼다. 896년(진성여왕 10) 서남지역에서 일어난 초적들은 붉은 색 바지를 입고 조적을 갖추어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렸으며, 경주 근처까지 진출하여 약탈하였다. 그 무렵 신라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천지가 온통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니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행동이 짐승과 같았다”고 기록하였다(오대산사 길상탑지).

8~9세기에 이처럼 재해와 기근 때문에 유망민이 대량 발생하고 농민항쟁이 거세지면서 지방 통제가 어려워진 사정은 동아시아 각국이 마찬가지였다. 당나라에서 안록산사사명의 난(755~763), 황소의 난(875~884) 등이 이어지고 지방 번진이 활거하다가 907년에 멸망하고, 5대10국의 분열기(907~979)가 도래하였다. 일본에서도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중엽까지 율령의 공지공민제가 해체되고 농민들이 유망이 격화되었다.

2. 지방 세력의 대두와 자치기구

1) 일어서서 힘을 키우는 지방세력들

일본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촌락문서」에는 통일신라시대 서원경(지금의 청주시) 부근 촌락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농민층이 분화되는 한편 촌주와 같은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녕 인양사비에는 8세기 말~9세기 초에 그 지역 일대에서 승려가 공덕을 쌓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던 그는 여러 사찰의 불사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驛)에까지 곡식을 기부하였다. 이처럼 당시 지방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원래 신라 정부는 지방의 유력 상층민에게 촌주와 같은 직책과 관등을 주어 포섭하여 지방 지배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왕경 민과 지방 민 사이에는 골품제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경 6부의 골품귀족뿐이었고, 골품제의 벽은 신라 말기까지 여전하였다. 나름대로 재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지만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던 지방민들은 그런 골품제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신라 하대에 들어 귀족들이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고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자, 지방의 유력층 가운데 세력을 키워 지방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지방 유력층은 유망과 초적활동 등이 격화되자 지역사회의 안정에 나섰다. 그들은 계급으로 본다면 지주로서 하층농민과 대립하였고 행정적으로는 촌주로서 지역민을 지배하는 처지였다. 그렇지만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촌락 질서를 유지하려면 지역사회를 단속하고 결함을 다질 필요가 있었다. 이제 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약화되자 그들의 지도력이 부각되었다. 한편으로 권력에서 소외된 왕경민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현상도 늘어났다. 삼국을 통일한 뒤 일부 귀족들을 9주 5경에 이주시킨 적이 있는데, 하대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들이 이주하면서 더 확산되었다. 그들도 토착 유력층처럼 지역기반을 다지고 또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기도 하였다.

9세기 후반 무렵에는 지방에서 자립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다. 지방 세력으로서 이른바 호족이 이끄는 자위조직의 등장이 그것이다. 토착 유력층이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거나 지방군관과 같은 무장 세력과 결합하여 자위조직을 만들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 강력한 지방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말년에 쇠퇴하자 정치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흩어졌으며 지방의 주현 가운데 신라에 반기를 든 곳과 복속한 곳이 반반이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것처럼 곳곳에서 지방 세력이 자위조직을 만들어 신라의 무너진 공권력을 대신한 결과, 9세기 말 무렵이면 초적의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자

위조직들은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힘이 커지면서 거기에 포섭되어갔다.

2) 자치기구, '관반(官班)'의 조직과 운영

지방 세력은 무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신라의 중앙관제와 방불한 행정기구를 운영하였다. 그 자치 행정기구를 관반이라고 부른다. 관반이라는 표현에서 지방 유력층이 골품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관인으로서 자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반의 조직을 보면 최고위급에 당대등대등이 있고 그 밑에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호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병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창부 등의 부서를 두었다. 지방 세력은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반과 같은 체계적인 행정조직을 갖추어 지역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등이나 병부경처럼 신라의 골품귀족이 중앙에서 사용하던 직명을 써서 그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지역에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내세우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의 안보와 권농교화구휼 등에 노력하고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는 리더로서 자신들의 역할이 인(仁)·의(義) 등의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자기 가풍이기도 하다고 내세웠다. 예를 들면 공주 출신의 선승 공양(兢讓, 878~950)의 비문에 따르면, 증조 때부터 고을에서 유력한 집안으로 추앙되었다고 하면서 조부가 모두 수신에 힘써 인·의의 덕목을 체득하고 많은 공로를 세웠으며 자손에게 물려줄 업(業)을 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맡은 일에 힘쓰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자(長者)라고 불렸고 원근에서 칭송하였다고 하였다. 그런 기록은 주인공의 가문 내력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세력이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하려고 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증대되는 지방사회의 문화적 역량

신라 귀족들이 왕경에서 누린 호사는 지방에서 수취해온 재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렇지만 말기에 이르러 각지에서 지방 세력이 대두하여 납세를 거부하면서 경제력의 왕경 집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앙 귀족들의 지방 전장을 경영하고 수확물을 왕경으로 옮기려면 지방 지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국이 전란상태가 되면서 그것도 곤란하게 되었다. 반면에 지방 세력이 성장하면서 지방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방문화 수준도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불교계에 새로운 경향으로서 선종이 흥기하였다. 선승들은 지방 출신이 많았으며, 귀족 출신이더라도 중앙권력에서 소외되어 낙향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자 선승들이 지방 세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지방에 선문을 개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9산선문(九山禪門)이었다. 선승이나 지방 세력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선승들이 교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방 세력이 반겼다.

지방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커진 것은 지방의 학교와 유교지식인의 존재에서도 볼 수 있다. 유학 정치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신라 조정에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뜻을 펴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 지방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이른바 '3최'로서 이름을 날린 최치원·최언위·최승우 등이다. 신라 정계에서 뜻을 펴지 못하자 최치원은 은거하였고, 최언위와 최승우는 각각 왕건과 견훤에게 가서 일하였다.

지방 세력은 선승을 후원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 가운데 지방에서 지식인들이 성장하였다. 예를 들면 지금의 황해도 연백군 연안 출신 태평(泰評)은 유학을 공부하고 그곳 지방 세력의 참모가 되었다가 다시 궁예 휘하로 들어갔다. 왕건에게 협력한 최응은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 토산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오경에 통달하고 글을 잘 짓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지몽은 영암군에서 성장하여 유학을 배워 통달했으며 천문과 점복에도 정통하였고, 왕건의 참모가 되었다.

4. 향도의 조직과 활동

1) 불교 신앙결사인 향도

향도는 불교신앙을 닦기 위해 만든 결사조직이다. 삼국시대에 불교를 수용한 이후부터 생겼으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는 609년(진평왕 31) 무렵 김유신이 주도한 용화향도(龍華香徒)이다.

8~9세기에는 왕경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향도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해남 미황사의 연기 설화를 보면, 749년(경덕왕 8)에 승려와 촌주 등이 중심이 되어 향도를 결성하여 사찰을 조성하였다. 강원도 고성의 건봉사연회비(乾鳳寺蓮會碑)에도 748년(경덕왕 7) 향도를 결성하여 불사를 한 기록이 있다. 그 향도는 미타신앙에 토대를 두고 1,80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염불 정진하는 승려들에게 29년 동안 식량과 의복 등을 시주하였다. 경남 사천 선진리에서 발견된 신라비편에도 8세기 중반 승려와 그 지역의 현령, 촌주 등이 향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799년(원성왕 12)에 만들어진 충남 홍성의 용봉사 마애불상도 지방 세력이 중심이 된 향도가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817년(헌덕왕 9) 경주에서는 승려와 지역민들이 향도를 조직하여 이차돈의 무덤에 예불하는 법회를 매달 열었다. 865년(경문왕 5) 철원 도피안사의 비로자나불상을 만들 때에도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을 후원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직된 향도가 참여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향도를 결성하여 불상 조성, 법회 시주, 예불 등의 신앙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도피안사 향도 사례를 보면, 불상 명문에 석가불이 열반한지 1,806년이 지났다

고 기록하여 당시를 말법시대라고 보는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말법시대
는 불법의 가르침은 있지만 수행과 깨달음이 없어서 인심이 흉악해지고 고통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하는데, 그 향도의 구성원들은 당시 현실을 그런 고통의 시대라고 인식하고
불사를 통해 공덕을 쌓고 미륵의 구원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 불사가 있는 지 30여 년
뒤에 그곳에서 후고구려를 개국한 궁예는 하생한 미륵이라고 자칭하였다. 궁예는 민중이
메시아로서 미륵의 하생과 구원을 염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세력을 키우고 다졌다.

2) 향도와 지방세력

통일신라시기에 불교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부처와 보살의 자비심에 의지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토신앙과 관음신앙 등이 민들에게 호소력을 갖고 유포되었다. 그리고 신라
하대에는 지방 유력층이 그런 불교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서 세력기반을 강화하였다. 향도의 조직과 활동을 대개 그들이 주도한 데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재해와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한 공
덕 불사를 하기에 영세한 농민들 개개인들로서는 역량이 부족하였다. 당시 중앙정부가 그
들을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그 지역 유력층이 향도와 같은 신앙결사를 통하여 그들을
결속하고 공덕 불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불안감을 씻어주었다. 그들은 지역민들을 조직적으
로 이끌어 의미 있는 불사에 참여하여 공덕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신망을 얻고 리더십을 강
화하였다. 미황사 연기설화에 나오는 향도 사례는 향도의 불사에서 촌주가 중추적 역할
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향도는 일차적으로 불교 신앙행위를 통한 기원(祈願)에 목적을 두고 조직되
었을 것이지만, 신라 하대의 상황에서 지방 유력층 중심의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하였다. 향도 참여가 비록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유력층이 조직
하거나 활동을 주도하면서 향도가 향촌 지역공동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일정하게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향도가 한 것은 아니지만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이루어진 다른 불사 사례들을 조사해 보
아도 사정이 비슷하였다. 예컨대 833년(흥덕왕 8)에 지금의 경남 진주지역에서 연지사종
(蓮池寺鐘)을 만들 때, 승려와 함께 촌주 등이 제작을 주도하였다. 856년(문성왕 18)에 규
흥사종(窟興寺鐘)을 만든 불사와 904년(효공왕 8)에 송산촌대사종(松山村大寺鐘)을 만든
불사도 상황이 비슷하였다. 촌주를 포함하여 지역 관반기구가 불사를 주도한 배경에는 공
덕신앙행위로서 지역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주면서 지역사회의 결속과 안
정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었다. 각지의 지방 세력들이 선승을 초빙하여 불교신앙을 통해 지
역 내의 통합을 강화하려고 한 의도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김갑동, 1990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전기웅, 1996 『나말려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해안
채웅석, 2000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전덕재, 2006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최병현, 1975 「나말려초 선종의 사회적 성격」 『사학연구』 25
김광수, 1979 「나말려초의 호족과 관반」 『한국사연구』 7
이순근, 1989 「나말려초 지방세력의 구성형태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연구』 67
윤선태, 2005 「신라 중대말~하대초의 지방사회와 불교신앙결사」 『신라문화』 26
하일식, 2010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한국중세사연구』 29
채웅석, 2007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왕조 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사시민강좌』 40
채웅석, 2016 「한국 고대 향도의 조직과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1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